선교 여행
비 버

남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 보다 더 좋습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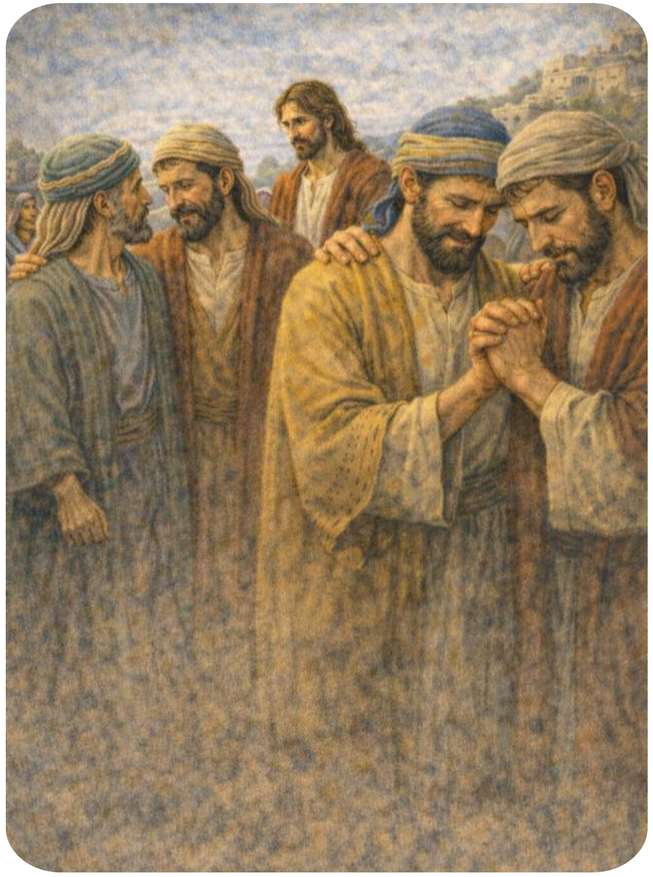
01 성경말씀 회상하기

02 중심생각 연결하기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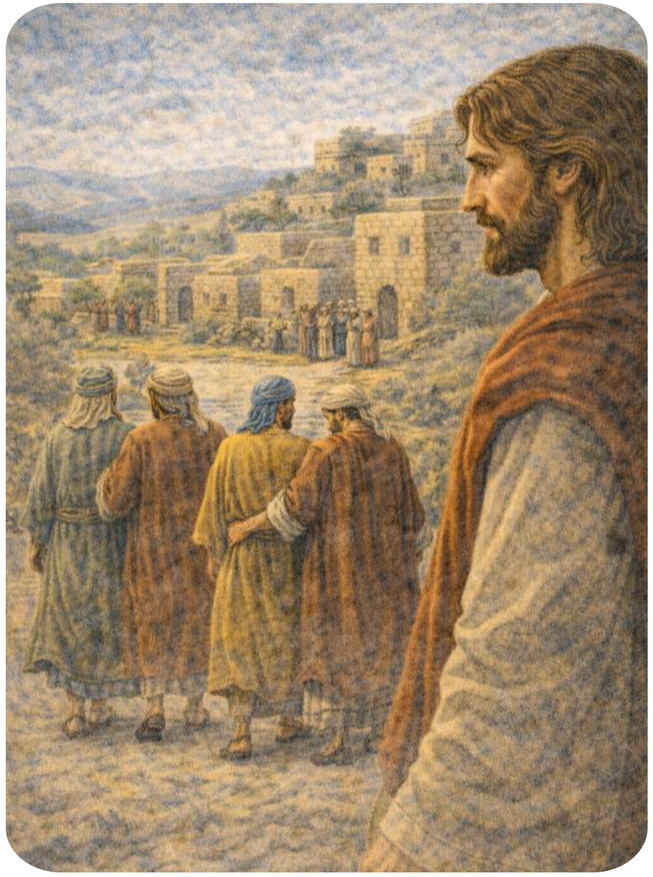
04 성경학습활동 1

05 성경학습활동 2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보내셨어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게
하시려는 뜻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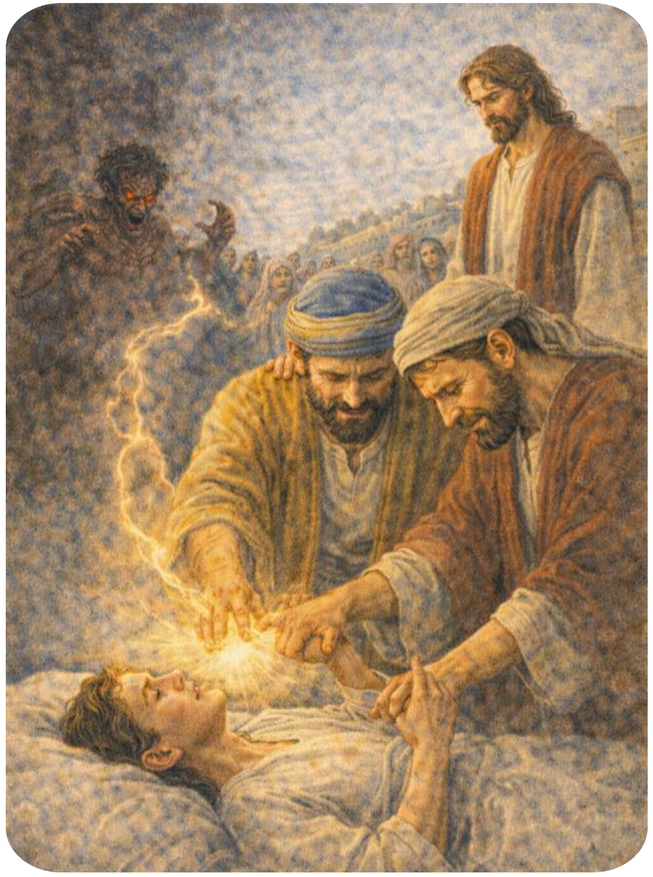
예수님은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진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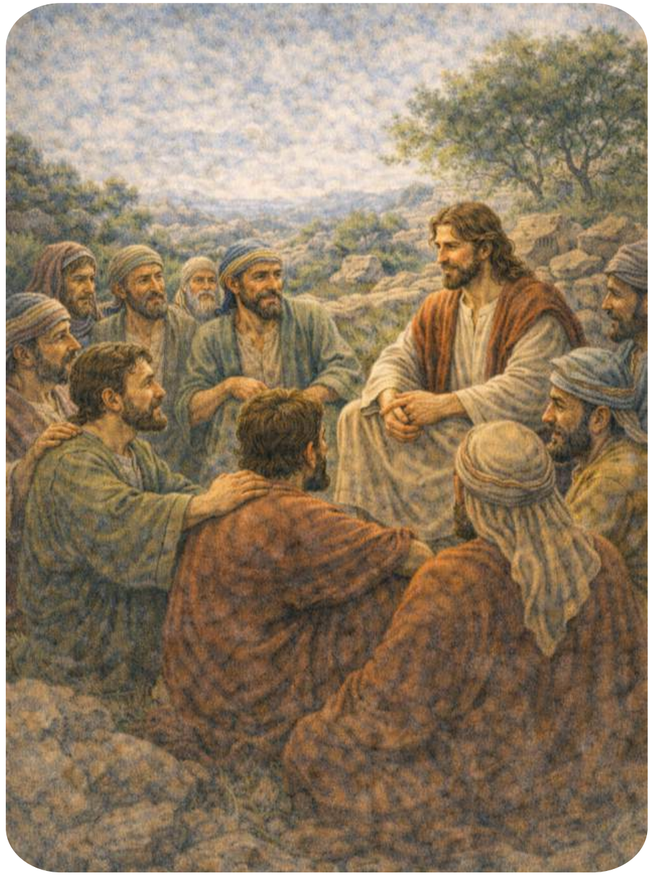
예수님은 돈이나 여벌 옷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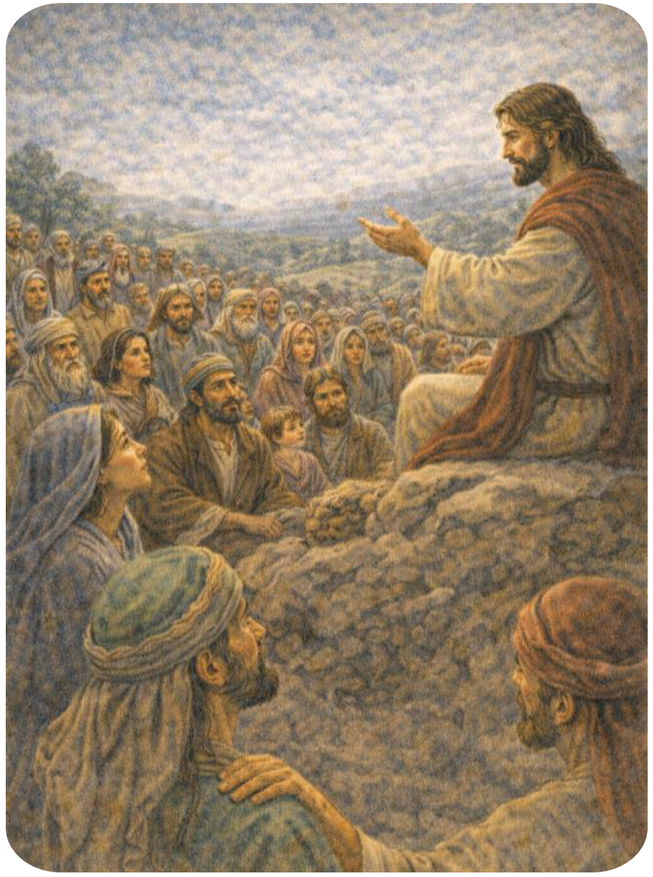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물리칠 힘을 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일은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용한 곳에서 쉬며
다시 힘을 얻게 하셨어요.



쉬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 씩 앞서 보내시며"(누가복음 10장 1절)

남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서로 돕고 힘을 모을 때 더 큰 기쁨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비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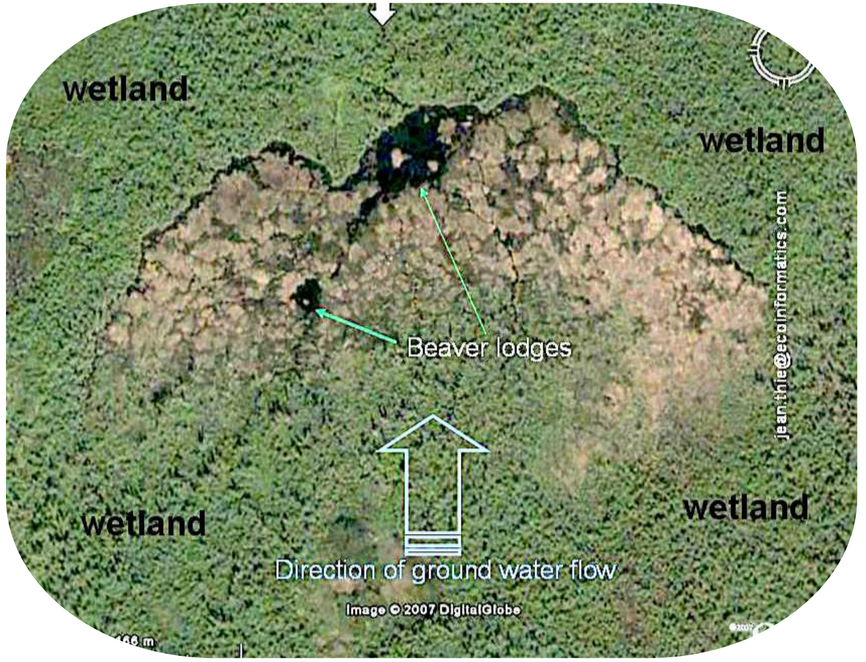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보내셨어요.
비버처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잘 견디고, 더 멀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비버의 날카로운 이빨

비버는 아주 단단한 앞니로 나무를 씹어요.
이빨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나무를 씹으며
길이를 맞추고, 나무껍질은 먹이가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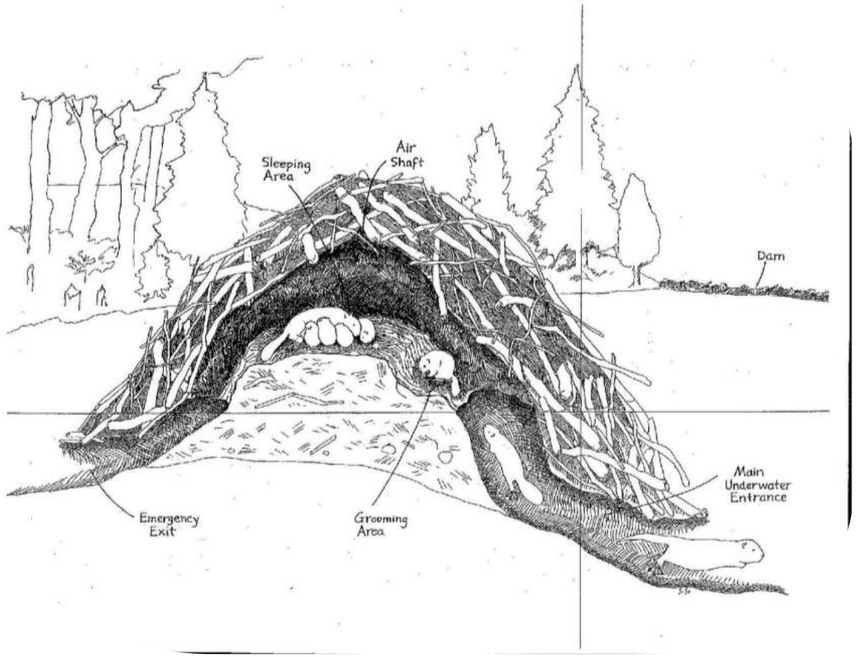






비버는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물길을 막아 댐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깊어져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연못이 생겨요.





비버의 집은 겉으로는 나뭇가지 더미처럼 보여요.
입구가 물속에 있어서 적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

큰 나무를 자르고 옮기고 쌓는 일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버는 가족이 함께 살며
일을 나누어요.



함께하면 빠르게

비버 가족은 힘을 합쳐
며칠 만에 댐을 완성해요.

댐이 무너지면 하룻밤 사이에
함께 고치기도 해요.



천연계 속 교훈

비버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안전하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함께 가면 서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함께 걷기를 바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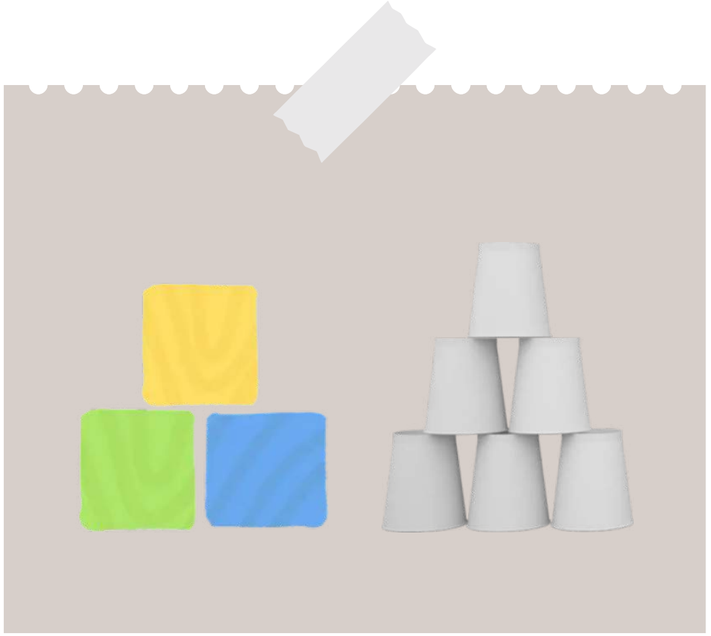
함께 지은 믿음의 댐

비버는 혼자서 거대한 댐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 마리가 함께 나무를 옮기고, 돌을 쌓고, 힘을 모아
서로의 역할을 나누며 댐을 완성하지요.
그래서 비버의 댐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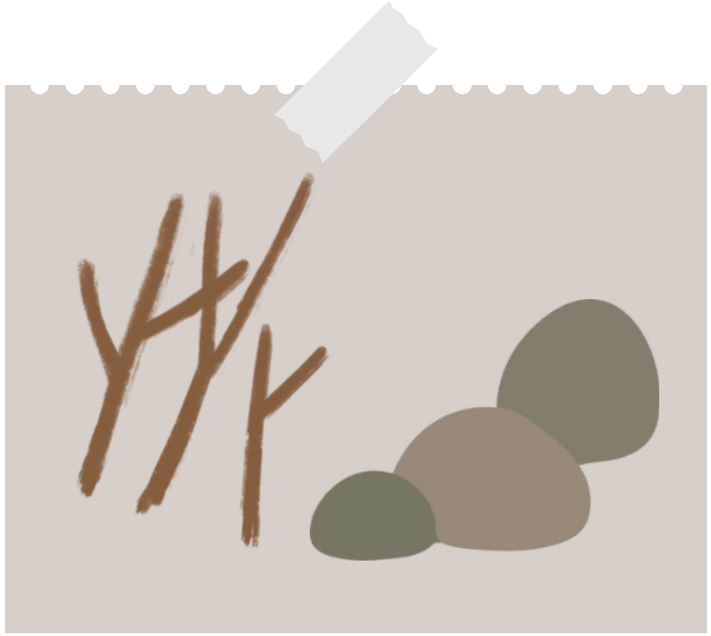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혼자 할 때와 함께할 때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함께 보내셨는지
몸으로 느껴 보고 마음에 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준비물



나무 블록 or 종이컵
[실내 활동 시]



자연물(돌, 나뭇가지 등)
[실외 활동 시]



타이머

활동 방법

1. 천연계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활동을 시작한다.

- 비버는 혼자서 댐을 만들까요, 아니면 함께 만들까요?
- 왜 비버는 여러 마리가 함께 힘을 모아 댐을 만들까요?
- 혼자서 이 일을 다 하려면 어떤 점이 힘들 것 같나요?
- 함께하면 어떤 점이 더 좋아질까요?

2. 각자 정해진 시간(예: 2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혼자 작은 구조물을 만들어 본다.

- 혼자 만들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활동 방법

3.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같은 재료로 하나의 구조물을 함께 만든다.
(시간은 동일하게 설정)

- 함께 만들 때는 무엇이 달랐나요?
- 친구와 어떤 점을 의논하며 만들었나요?

4. 혼자 만든 구조물과 함께 만든 구조물을 나란히 보며 이야기 나눈다.

- 혼자 만들 때는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 함께 만들 때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 친구와 역할을 나누거나 도와주니 어떤 점이 더 쉬워졌나요?
-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함께 보내셨어요.
전도 여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활동 방법

5. 성경 이야기와 연결하여 정리한다.

- 제자들이 만약 혼자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 둘이 함께라서 어떤 힘을 얻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지은 댐처럼,
예수님의 일도 혼자서 버티며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감당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할 때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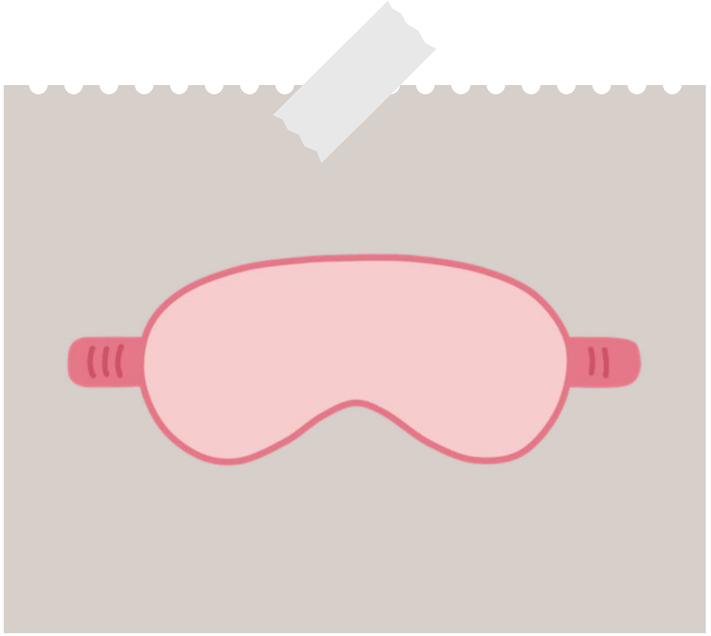
함께 가는 믿음의 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셨어요.
길을 떠나는 일은 설레기도 했지만, 낯설고 두렵고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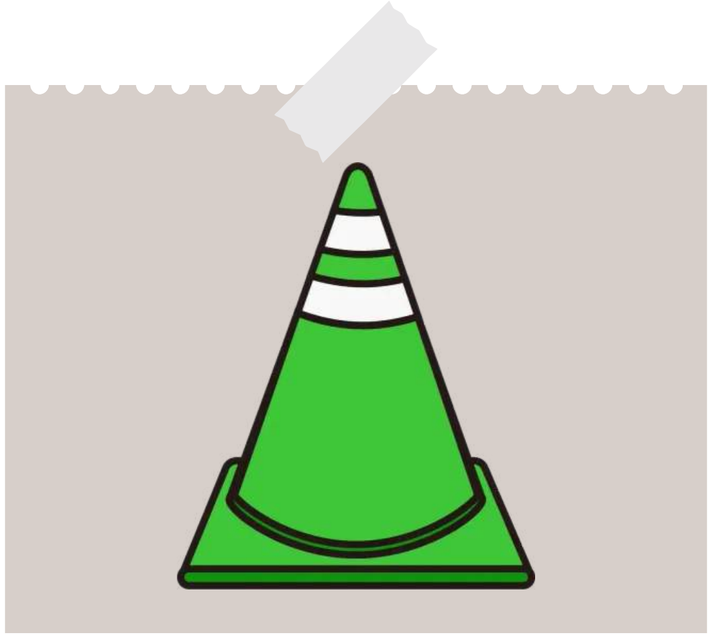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자 버티며 가길 바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어요.

오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친구의 말을 믿고 함께 길을 찾아가 보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는지
몸으로 느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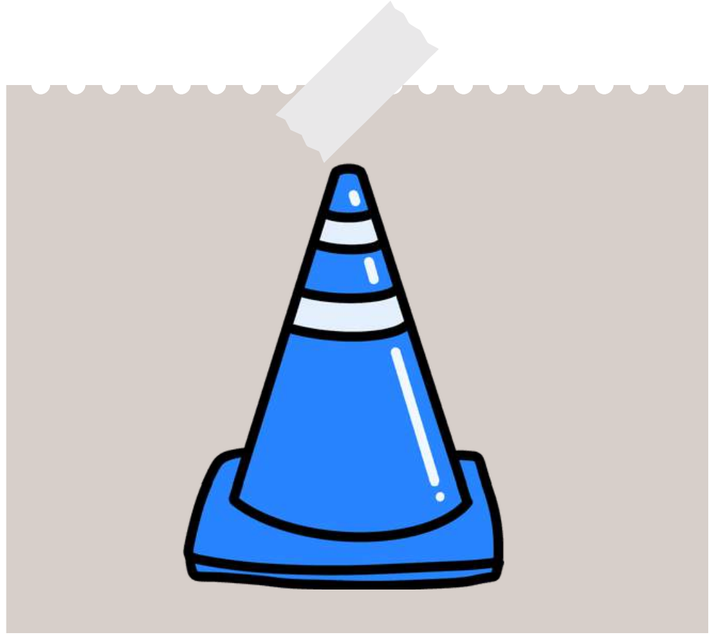
준비물



안대



시작 지점 표시물



도착 지점 표시물

활동 방법

1. 말씀 내용을 되돌아보며 이야기 나눈다.

-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자 보내셨을까요, 둘씩 보내셨을까요?
-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까요?
-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혼자일 때와 친구와 함께일 때 중 어느 쪽이 더 든든할 것 같나요?

2. 오늘 할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만약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길을 알려 준다면 도움이 될까요?
- 오늘은 눈을 가린 채 친구의 말에만 의지하여 길을 가야 하는 활동을 해 볼 거예요.

활동 방법

3. 함께 가는 믿음의 길 활동에 참여한다.

1) 두 명의 아이가 한 팀을 이룬다.
2) 한 명은 눈을 가리고, 다른 한 명은 말로만 길을 안내한다.
3) 눈을 가린 친구는 안내하는 친구의 말을 잘 들으며 목표 지점까지 이동한다.
4) 도착한 후 역할을 바꾸어 다시 한 번 진행한다.

4. 활동 중 느낀 마음을 나눈다.

- 눈을 가리고 길을 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안내해 주는 친구의 말이 도움이 되었나요?
- 내가 혼자였다면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활동 방법

5. 성경 이야기와 연결하며 기도로 마무리한다.

-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제자들도 여행하며 두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까요?
- 그럴 때 옆에 함께 가는 친구는 어떤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가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두렵고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세요.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친구와 함께 나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보내세요

